

“KBS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 KBS 방송지표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

올 한 해 KBS는 공정한 방송과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 KBS 방송지표

2024년, KBS는 거대한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국내외 콘텐츠 무한 경쟁과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지상파 광고 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원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대규모의 제작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는 ‘공정’과 ‘혁신’을 나침반 삼아 담대하게 위기의 파고를 넘을 것이다.

2024년, KBS는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뉴스 및 시사·교양 콘텐츠에서 불편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국민이 올바

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공정한 선거방송으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 역할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와 글로벌 이슈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공영방송의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다.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국민 감동 콘서트, 정통 대하드라마 등 국민의 기대를 넘어선 혁신적인 콘텐츠와 KBS만이 할 수 있는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다

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KBS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콘텐츠 토탈 리뷰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영향력과 공영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을 이뤄내겠다.

위기와 도전에 맞선 KBS는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한다.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라는 방송지표가 KBS의 존재 이유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새로워질 것이다.



KBS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50살 중년의 KBS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KBS가 올해에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공영미디어로 도약할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KBS가 이뤄낸 지난 50년의 성취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진원지가 바로 KBS입니다. 2011년 시작한 <뮤직뱅크 해외투어>는 K-POP의 열풍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의 우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KBS 뉴스의 평균 시청률은 20%를 상회했고 종편 출범 이후에도 MBC, SBS, JTBC 등 모든 방송사를 합친 것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 방영된 대하사극 <태조 왕건>은 이후 깨지지 않는 시청률 기록인 6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예능 버라이어티 <1박2일> 역시 현재도 깨지지 않는 예능 역대 최고 시청률 30%를 기록했습니다.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은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무려 78%라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2015년 마침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기록과 실적은 오직 KBS인과 KBS의 역량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열정은 여전히 KBS 내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존립 위협

그러나 지금 KBS는 이런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채 존립을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사분오열돼 있고 집행부와 직원들 간의 신뢰는 미약합니다.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 잠식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과 조직과 직종 이기주의가 견고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

우리 모두 변화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KBS인의 자긍심과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끌어내야 합니다.

혁신을 위한 불씨는 지퍼졌습니다. 희생과 도약을 위한 계획과 비전도 마련됐습니다. 미흡하지만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떠났던 시청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향 추세를 멈출 줄 몰랐던 9시 뉴스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성과가 뚜렷합니다.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과 예능 <개그콘서트>, <골든걸스>의 선전은 OTT 업계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오늘이 미래의 원동력

1월 1일은 제가 KBS인이 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50년의 전통을 이어온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한 리더일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는 KBS에 대한 애정과 소명 의식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와 비전이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BS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KBS의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KBS인이신 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을 믿으십시오. 하루하루 공영미디어 구성원으로서 쌓아 갈 성과를 믿으십시오.

획기적이고 기상천외한 사업 플랜이나 경영 전략이 아니라 KBS인들이 만들어가는 ‘오늘’이 KBS의 위기를 극복하고 KBS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 동력이 됩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저와 집행부는 성실하고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박민**

2024 KBS 주요 캘린더

1월 23일
KBS 시청자네트워크 2024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3월 3일
KBS 창립기념일(1973년)

3월 8일(예정)
2TV <생생정보> 2000회 특집방송

3월 15일(예정)
1TV <6시 내고향> 8000회 특집방송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5월(날짜 미확정)
KBS재허가 사업자 설명회
(KBS 1TV, 라디오, 2TV지역, UHD광역, DMB수도권)

5월 20일
노조 창립 휴무일

7월 26일~8월 11일
2024 파리 하계올림픽(KBS 중계)

8월 28일~9월 8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KBS 중계)

9월 2일
제32기 시청자위원회 출범

9월 2일~ 9월 6일
제5회 시청자주간

9월 3일
방송의 날

11월 5일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

류삼우 부사장 소개



류삼우 부사장
1963년생
(前)인력관리실장
(前)총주방송국장
(前)노사협력주간

KBS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공사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공사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임원 모두가 KBS의 앞날을 위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민 사장 취임 2달... 변화하는 KBS

박민 사장 취임 후 KBS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KBS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KBS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박민 사장 취임 2달을 맞아 달라지고 있는 KBS를 정리했다.

변화하는 KBS... '위기'에서 '기회'로

1. 국고보조금 증액·2TV 재허가 조만간 결론
2. 국민·직원과의 소통 강화
3. 뉴스·드라마·예능 등 상승세
4. '시청자 중심'의 KBS로... 관료·권위주의 문화 탈피

1. 국고보조금 살리고...2TV 재허가 조만간 결론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국고보조금 '회복'	KBS 2TV 재허가 조만간 결론 예정
지난해 8월 기책정된 국고보조금 '0'원 → '108억' 원 국회 및 정부 적극 설득해 증액 성공	방통위 의견 청취 등에서 2TV 재허가 당위성 설득

공영방송 책무 수행 위한 안정적 기틀 마련

2. 국민·직원과의 소통 강화

대내외 소통 채널 다양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2023년 11월 14일)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반성 및 사과
위기극복 워크숍 (2023년 11월 28일)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공사 재정 위기 상황 공유
정기 사보 및 특보 발간	공사 정책 방향 및 재정 위기 상황 투명 공개

3. 뉴스·시사 → 신뢰 상승, 드라마·예능 → 경쟁력 상승

보도 공정성 강화... 디지털 약진

KBS 저널리즘 7대 강령 마련

1. 사실만 전하겠습니다
2. 정확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3. 공정한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4. 성역 없는 취재를 하겠습니다
5. 시청자를 최우선하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6. 재난 방송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7. 취재 보도 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디지털 뉴스 상승세

디지털 플랫폼(뉴스 홈페이지, 포털, 유튜브)
일평균 조회수 28% 상승



드라마·예능 경쟁력 제고

-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10회만에 10% 최고시청률 달성(전국 기준)
- <골든걸스>: 예능프로그램 브랜드평판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위
- <개그콘서트>: 신선한 코너들로 공개 코미디 부활 알리며 시청자 호평
- 12월 예능프로그램 브랜드평판 30위 안에 <개그콘서트>, <불후의 명곡>, <1박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국노래자랑> 등 다수 프로그램 포진

라디오 전면 쇄신

- 7주간 <특집 KBS 1라디오 오늘>과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특집 편성
- 불공정 비판받아 온 <최경영 최강시사> 및 <주진우 라이브> 대체
- 행정지도·법정제재: 특집 편성 이후 없음 (과거 '최경영 최강시사' 총 17회, '주진우 라이브' 총 46회)
- 1월 1일부터 라디오 수시 조정 대폭 단행

4. '시청자 중심'의 KBS로... 관료·권위주의 탈피

'KBS온'(견학홀)
경영 위기에도 시청자가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 투자

<뮤직뱅크>	<고려거란전쟁>	<TV유치원>
1020세대 상대 미디어 교육 실시 → 미래 세대와의 소통		

시청자청원 제도 개선
'공익과 관련해 주요한 청원'인 경우 1,000명 동의를 안되더라도 답변 가능

<뮤직뱅크> 녹화방송 방청객 대기 시스템 개선
실내 대기(의자 및 따뜻한 음료 제공)

인사제도 혁신 통해 피라미드형 '효율적 조직'으로

■ 조직: 역 피라미드형 → 피라미드형으로

감사원은 20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공사가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되는 직급체계는 정원표를 기존의 역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설계했다. 직급체계에는 국장, 부국장, 부장, 팀장직급 등을 신설하며, 직급별 정원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직급체계: 변동형 직급체계 → 고정형 직급체계

현행 직급체계는 보직 유무에 따라 직급이 분리되는 변동형 직급체계이다. 보직을 맡지 않아도 가장 높은 G1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보직을 상실하면 실무직급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보직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았고 특히 업무가 많은 팀장급 보직은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편된 직급체계는 기존의 변동형을 고정형 직급체계로 설계해, 팀장부터 부장, 부국장, 국장직급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야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적용 방식: 무보직 G0, G1, G2 → 3직급, 나머지는 수평이동

개편된 직급체계를 적용하면 기존 실무직급의 G0, G1, G2는 모두 3직급

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보직 경험이 없는 3직급과는 차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직급은 하향 이동이지만, 직위 부여 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기존 G3~G7은 자신의 직급에 따라 3직급에서 7직급으로 수평이동한다.

■ 개편된 후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려면?

평가 기간 '대우'를 거친 후 승진 소요년수 3년을 채워야 한다. 3직급에서 팀장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장 직위를 받아야 한다. 이때 1년 동안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좋으면 팀장직급이 된다.

상위직급별 단계마다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먼저 직위를 받아 평가받는 '대우'기간을 둔다. '대우'기간을 포함해 최소 승진 소요년수 3년을 채워야만 다음 직급의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발탁은 있지만, 근무평가가 중요!

3직급 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직자로 발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근무평가를 받지 못하면 보직자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2024년 주요 방송 이슈 미리보기

공정과 신뢰, 고품격 공영 콘텐츠로 거듭나는 KBS

공정과 신뢰

2024 국민의 선택, KBS 총선 개표방송

D-100. 개표방송 부동의 시청률 1위, KBS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고품격 선거방송의 왕좌를 지켜낼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춘 '디시전-K'가 이번에 AI를 만나 어떠한 예측을 보여줄지,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을 만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듀얼-LED 세트는 어떻게 구현될지 역시 한층 기대를 모은다.

파리올림픽, 올림픽 중계 금메달은 역시 KBS!

전 세계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2024년 7월 26일 하계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대부분의 경기가 베르사유 궁전, 앵발리드, 에펠탑 광장, 그랑팔레 등 유적지와 명소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단순한 올림픽 경기 중심의 중계 방송을 넘어 파리가 간직한 문화, 예술,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수들 각자가 간직한 스토리들을 놓치지 않고 담아낼 예정이다. KBS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최고의 해설진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또다시 시청률 1위에 도전한다.

새로운 혁신

라디오, 혁신을 통한 신뢰성과 효율성 강화

대한민국 대표 뉴스·시사 채널인 1라디오는 공정

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격시사>는 30년 경력 전종철 기자가, <뉴스레터K>는 젊은 감각의 김용준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년 개편에서는 내부 진행자를 대폭 기용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과 <지금 이사람>, <경제쇼>, <오늘 밤, 1라디오>는 내부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며, 1라디오 <시대음감>과 1FM <세상의 모든 음악(주말)>은 내부 PD가 직접 진행하는 형식으로 재정비되었다.

리소스 배정부부터 후반 작업까지 한눈에 '제작 리소스 포털'

프로그램 제작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3월 말까지 구축될 예정인 '제작리소스 포털'을 통해 누구든 제작리소스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하고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부 리소스 활용이 간편해지는 만큼 제작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격 공영 콘텐츠

기후 위기 대응 '대기획 <빙하> 3부작'

KBS는 '기후 위기'를 2024년 KBS 프로그램의 키워드로 설정했다. 3월에 방송 예정인 UHD 대기획 <빙하> 3부작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고찰할 예정이다. 이어 자연환경 숏폼 콘텐츠 <지구는 없다> 30편 등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인물다큐 시리즈 <더 마스터> 2부작

문화계 거장들의 비밀스러운 일상과 전기를 융합

한 고품격 다큐멘터리 <더 마스터>가 6월 중 방영된다. 1부에서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일상과 음악에 대한 통찰을 전달하고 2부에서는 케이팝(K-POP)의 거장 중 한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 마스터>는 향후 경제,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거장들을 다룰 예정이다.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획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고려거란전쟁>이 2024년에도 시청률 고평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거란전쟁>은 다시금 KBS 정통 사극의 힘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전쟁 장면과 완성도 높은 CG, 디테일한 고증으로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은 <고려거란전쟁>은 2024년에도 순항 중이다.

국민 감동 초대형 콘서트와 뮤직뱅크 월드투어

나훈아-심수봉-임영웅-송골매-god를 잇는 국민 감동 초대형 콘서트는 올해도 계속된다. 세대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국민 감동 공연은 올해도 레전드급 출연자를 섭외 중이다. 한편, 아시아를 넘어 남미,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KBS 뮤직뱅크 월드투어>가 2024년에도 해외 현지 팬들을 위한 진격을 준비 중이다. 4월에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앤트워프)에서, 10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Q&A 수신료국에 묻습니다

Q 현재까지 수신료 분리징수 상황은?

지난해 7월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KBS는 한전과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을 위해 막바지 협상 진행 중이며, 방통위·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와의 협의·협력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일반주택과 영업장은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개별 가구로 발송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Q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수신료가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나?

수신료 수입은 수상기 소지자의 납부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분리고지 전면 시행시의 납부율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수

신료국이 추정하는 수신료 납부 시나리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가정해 볼 경우, 2022년 대비 약 37%(약 2,500억 원) 감소된 4,4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50% 이상 수입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징수 비용은 2022년도 약 430억 원에서 약 1천억 원 정도까지 500억 원 이상 증가 예상되므로 수신료 순수입은 비관적인 상황이다.

Q 한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와의 협상 진척도는?

한전과는 2024.12.31.까지 위탁관계 유지를 전제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분리고지 방법 및 업무 처리 절차를 협의 중이다. 일반 가정용과 영업장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상당히 접근했다.

KBS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주관을 설득 중이다. 대주관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KBS는 혼란을 막고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주관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Q 최근 수신료국 사내 공모를 진행했다. 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

공동주택(아파트) 수신료 부과를 위해 관리사무소-한전 간 이뤄지던 업무를 KBS 사업지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국 약 2만 8천여 아파트 단지 단위별 수신료 부과대수 파악,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세대 관리, 미납금이 누적된 경우 체납 수신료에 대한 독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S의 각 사업지사에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